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김현태 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15 16:08 수정 2021.10.15 16:12 호수 1605 댓글 1

사명으로 따라 행선하고 사명대사 표충비 모신 홍제사 참배
마을마다 순례단 환영...범해·금곡 스님 등 순례 일일동참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0월15일 10번째 기착지인 경남 밀양에 도착했다. 순례단은 이날 29km를 더해 지금까지 351km를 행설했다.

부곡을 떠나 밀양에 들어서자 순례단을 먼저 맞이한 것은 마을 곳곳에 늘어선 환영 현수막들이었다. 통도사 말사들을 비롯해 밀양사암연합회 등에서 내 건 현수막들이 지친 순례단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어둠이 채 가시기 전임에도 다리마다 거리마다 늘어선 불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염불처럼 울려 퍼졌다. 날이 밝자 풍물패까지 등장해 순례단 걸음걸음을 응원했다.

아주먼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



“철해여! 그대 오늘사 지워지지 않는 41년의 비로소 적조에 쉬게 되 상처...10·27법난 추

날마다좋은날, 세계 각국 불교영화 지역상영...
마곡사, 코로나 극복·국태민안 기원 '군왕대...
용인 구만사, 방생법회 봉행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2021년 학술대회...
한국참선지도자협회, 6기 명상대강좌 수강생...
인천 용궁사, 10년 불사 원만 회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제 봉행
해남 대흥사, 30회 초의문화제 개최

연재

< >

세심청심

생일과 기일



나의 발심수행

염불수행 전동표(53) - 상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8. 흥천사 무량수전에는 턱...



무진등

구효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순례단은 사명대사의 법호에서 유래한 사명로(四溟路)를 따라 행선했고, 동틀 무렵 홍제사에 도착했다. 홍제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끌어 왜군을 크게 무찌르고 일본에 전쟁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3000명을 한국시킨 사명대사의 표충각과 표충비각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사찰이다. 홍제사에는 서산·사명·기허대사의 진영을 모신 표충사당이 있었으나 18세기 후반 재약산 표충사로 옮겨지면서 지금은 표충비만 남아있다. 이 표충비는 환란이 있을 때면 땀을 흘리는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

홍제사를 참배하고 아침공양을 마친 순례단이 숙영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밀양 무안리와 마흘리를 지나 밀양천으로 이어지는 순례길 내내 응원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특히 세 번째 휴식처인 가북복지회관 앞에는 (주)화영 임직원 100여명이 순례단을 환영하며 기운을 불어 넣어 눈길을 끌었다,



많이 본 뉴스

- 01 조계종 비구 66·비구니 16명, 대종사·명사 품서
- 02 “지역사찰 미래, 문화 콘텐츠 개발 여부에 달렸다”
- 03 본사주지 스님들, “불교평화 정청래 의원 제명하라”
- 04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5 기림사 전 주지 철해당 종광 스님 10월24일 원적
- 06 송영길 대표 “전통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타당...민주당 공식입장”
- 07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08 정청래, 이번엔 문화재관람료를 극장 관람료로 억지비유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정청래 의원 공개참회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주)화영 이흥원 회장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스님과 불자들이 순례길에 나섰고, 마침 회사 앞을 지나간다고 해 직원들과 응원을 나왔다”며 “스님과 불자들의 마음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북복지회관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 바랑을 내린 회주 자승 스님은 이흥원 회장과 부인 성정녀 불자를 찾아 “임직원들의 박수가 순례길에 큰 힘이 됐다”면서 108염주를 선물했다.

밀양천에 들어서자 수변공원 곳곳에는 무봉사, 보문사, 용궁사 등 밀양사암연합회 사부대중이 순례단을 맞이했다. 무봉사 신도 신영자 불자는 80세 나이에도 순례단 한명한명에게 합장 반배로 인사를 전했다. 신영자 불자는 “송광사에서 해인사, 다시 통도사까지 천릿길을 걷고 수행하며 순례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직접 보고 싶었다”며 “어렵고 힘든 길 끝에 바라는 바 성취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천리순례 15일차 순례길에는 포교원장 범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실장 및 국장스님과 중앙종회 부의장 각립, 만당 스님 등이 동행했다. “소임을 마치고 기회가 되면 순례에 꼭 동참하고 싶다”고 밝힌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과 함께하는 사부대중 모두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회향하길 서원한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곧 다가올 워드 코로나 시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향의 자리에는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oin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별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 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계·축원으로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에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심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 └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억새의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가로지르다
- └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수행·전법 새 장 열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1개의 댓글

자신자

비밀버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영취산 (비회원) | 2021-10-16 10:37:29

삭제

현수막이 물결치면 머하나
사람이 없는데
1000만불자 아나공이다

답글 작성



3



0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주)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C*